

# “참인재 키우는 상아탑 역할 다하겠다”

### 6월 29일 보광 스님 2차 인사… 동국대 경영조직서 대학조직으로 재편

동국대(총장 보광 스님)가 6월 29일 보광 스님 취임 이후 2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기획, 교무, 대외부총장 등을 비롯한 대학 조직 전반에 걸쳐 편제가 바뀌었다.

특히 대외부총장직이 신설되고 공식적으로 있던 불교학술원장직이 새로 임명되는 등 대외, 연구 분야의 업무가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의 이번 2차 인사는 그동안 기업형 구조였던 ‘본부’ 체제를 대학형 구조인 ‘처’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먼저 부총장 직책이 기획과 교무, 대외의 세 분야로 나뉘었다. 특히 대외부총장이 새롭게 신설돼 신하에 대외협력처(前 대외협력본부)와 연구처, 홍보처(前 전략홍보실) 등의 대외 업무를 총괄한다. 이 자리에는

지난 5월 6일 문화예술대학원장에 임명됐던 오원배 교수가 임명됐다. 문화 예술계 원로로 사찰 불사 등으로 불교계와도 인연이 깊은 오 교수의 대외적인 역량이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

1차 인사에서 경영부총장에 임명됐던 신재호 교수는 기획부총장으로, 학술부총장에 임명된 양영진 교수는 교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

이와 함께 전략홍보실도 전면 개편됐다. 대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처로 격상됐으며 홍보처장에는 고재석 교수가 임명됐다. 홍보실장에는 원충희 행정대학원·경찰사법대학원·사회과학대학 교학팀장이 임명돼 실무를 맡는다.

그동안 보광 스님이 직접 맡아 정성화해 이끈 불교학술원의 수장 자리에는 정승석 전 불교대학장이 임명됐다. 정승석 불교

본부에서 처로 바뀌고 직제 신설  
대외부총장직 두고 대외 업무 강화  
홍보실도 홍보처로 위상 높여  
불교학술원장에 정승석 교수

학술원장은 새로이 학술대학원장 겸임직에서 분리된 일반대학원장 직도 겸직하게 됐다.

정재형 교수는 문화예술대학원장 겸 예술대학원장이 됐으며, 비서실로 이름을 바꾼 옛 경영관리실의 책임자는 허남결 교수가 맡았다. 학생처장 겸 신설된 인권센터장, 기숙사관장은 김삼경 교수가 임명됐다.

한편, 동국대 이사회는 6월 30일 분당 동국대병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동국대 총

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현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에 관한 연구진실성위원회 징계요청건을 기각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보광 스님에 대한 징계요청은 그동안 절차상 문제 등이 지적돼왔다.

동국대 측 교무부총장 명의로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징계요청에 대한 절차적 문제와 징계 시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사회에서 정판에 명시된 징계사유 발생 후 시효 3년을 적용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연구진실성위원회로 징계건을 회송했다.

이와 함께 신입이사에는 호성 스님과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을 선출했다. 호성 스님은 재선출이며 지홍 스님은 前 이사장이었던 정연 스님의 후임이다. 임기는 교육부의 승인일로부터 4년이다. 지난 회에 해임된 이사 영담 스님의 후임은 이사회에서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해 정판 개정 후 진행될 예정이다. 영담 스님의 후임으로는 조계종에서 둔관·덕조 스님을 추천한 상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com



자승 스님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종교화합에 관심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다양성 존중에 사회 안정, 종교화합 관심을”

### 자승스님,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당부… 종단협 차원 예방 받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은 7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단협 회장단과 함께 황교안 신임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종단협 회장단이 함께 배석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은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국무총리의 종교편향성에 대해 언급하며 “종교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우리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 종교 갈등이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다”며 “종교화합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우리 사회는 종교간 갈등이 많지 않고 잘 화합해왔다. 앞으로도 (종교화합에) 유념하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하겠다. 종교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에서 종단협 회장단은 황교안 총리에게 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며 불교계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화재 보존 노력과 함께 문화재 관련 규제완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이주노동자도 한국 노동계 한 부분”

### 조계종노동위, 대법원판결 환영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이 합법화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도 노동3권 및 노조설립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노조가 서울지방 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관련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조계종노동위원회(위원장 혜음, 이하 노동위)가 6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판결에 대한 환영을 표했다.

노동위는 “이번 판결로 국민과 정부,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도 한국 노동자의 한 부분이 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을 단속하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권리 보장을 위한 포용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노동위는 “2005년 4월 24일 이주노동자 99명이 이주노조를 설립했거나 같은 해 6월 3일 서울지방 노동청이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지 10년이 지났다. 그간 이주노조 주요인원들은 표적 단속돼 강제추방과 입국거부를 당하는 등 온갖 수난을 겪었다”며 “이제라도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즉각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익을 기자

## “추상같은 만해 스님의 사자후가 그림다”

### 선학원, 만해 71주기 다례재 유족·정관계 3백여 명 참여 청소년 문예공모전 시상도 진행

만해 스님을 추모하고 사상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가 마련됐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6월 29일 서울 A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 71주기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로 선학원이 진행한 ‘만해 추모의 달’ 일련의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날 추모제에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선학원 고문 인환 스님, 만해 스님의 딸 한영숙 여사, 전국 선학원 분원장 스님, 동국대 석림동문회장 영담 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국회의원 정갑윤 의원,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등 사부대중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많은 시와 논문들을 통해서 저비사상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간과 출세간은 무용한 싸움을 멈추고 있지 않다”면서 “추상 같은 만해 스님의 불호령이 그림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스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 후학들을 이르는 곳마다 고향마을이 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 삼천대천세계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



만해 스님 71주기 추모제에서는 한승석 중앙대 교수와 국악단 ‘바리자’가 국악공연을 선보였다.

모사에 같음했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한용운 스님의 71주기 추모는 선학원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며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혜명을 굳건히 지키는 이 시대 불교의 법등이 되어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부 추모공연은 제1회 청소년 문예공모전 시상식으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시 부문 최우수상 한유경 학생이 수상작 ‘꽃밭을 걷을 길’, 산문 부문 윤소연 학생이 ‘만해 한용운, 그의 삶’을 낭독했다. 시 부문 우수상 이민정, 민유빈 학생과 산문 부문 우수상 박지현, 진시형 학생도 각각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한승석 중앙대 교수와 국악단 ‘바리자’는 국악 공연을 선보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com

## “이웃 고통 외면한 불교, 감동이 없다”

### 조성택 교수, 27일 화쟁아카데미 5차 종교 포럼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상향은 ‘모든 생명의 안녕과 행복’이었으나, 부처의 꿈은 현실 속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동아시아로 불교가 전래된 이래 관념적 세계관으로 고착됐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화쟁문화아카데미 대표·사진)는 6월 27일 종로구 시간동에서 열린 화쟁문화아카데미 제5차 종교포럼에서 현대의 불교가 이웃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불교”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현재 한국불교의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화두를 듣고 선방에 앉아있거나 교리를 공부하고 경전을 통해 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곧 ‘불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엄밀하게 말해 ‘안다’는 것과 ‘실천’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는 가르침을 인식하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것도 불교를 믿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한국불교에는 감동이 없다”며 “우리는 고양시키는 것은 연기법에 대한 논리적 이해가 아니라 초기불교 이래



잊혀졌던 ‘종교적 감성’의 복원으로, 가장 불교적인 감성은 ‘고통에 대한 예민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수는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기 위한 불교의 자세로 시민보살과 불교민의 방식으로 사회참여 등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보살정신은 수행과 구원이 라는 종교적 차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체적 시민의식의 차원으로 외연을 넓혀가야 하며,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는 종교’란 ‘동체대비(同體大悲)’라는 불교의 용어로 구체화된다”고 강조했다.

불교민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굳이 한쪽 편을 들을 필요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자신의 옳음만이 유일한 옳음은 아니며, 다양한 옳음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단순히 피해야 뿐만 아니라도 가해자 또한 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며 “이것이 불교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 컴퓨터 공학자, 붓다에게서 길을 찾다!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지혜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인공지능이 답이다!

인공지능의 대가이자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폰 노이만을 계승한 저자가, 마음의 과학, 지혜의 과학을 완성한 붓다에게서 미래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다!

지승도 저/신국판/284쪽/15,000원

## 사진으로 만나는 달라이 라마,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말씀!

소박하고 인간적인  
달라이 라마의 모습과  
깊은 울림과  
감명을 주는 가르침을  
담은 책!

##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20여년 동안 인도에 머물며 달라이 라마와 티벳인들의 수행과 일상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작가가,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가르침을 한데 모아 엮었다.

이영자 사진/국판변형/전면컬러/280쪽/15,000원